

# 韓國 大學 建築教育의 問題點

목 차

林 忠 伸

〈울산공대 건축학과 교수〉

- I. 序 言
- II. 建築教育의 범위
- III. 問題點의 추출
- IV. 結 言

## I. 序 言

建築教育에 관한 논의는 이미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建築學會 주관으로 1970년 이래 7차에 걸친 全國 建築學科教授세미나가 있어 왔으며, 그 외에 各 分科委에서도 分野別 建築教育을 논의하여 왔다. 또 그 밖에도 많은 建築教育 관계 論文, 報告, 리뷰, 기타 資料들이 學會誌에 실려 온 것으로 보아 이 점에 대하여 우리 建築人들이 소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共同의 대화로서 建築教育을 논의하여 온지 십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研究, 제안, 비평, 助言 등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 만큼의 行動的 結果를 보았는가 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한 教育 당사자의 입장에서 저이기 당혹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學會誌의 관계자료들을 살펴 보면 그 논의의 폭이 建築教育의 제반사항에 걸쳐 포괄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 建築教育의 개선에 관한 한 높은 意見一致度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行動缺如의 원인이 흔히 있을 수 있듯이 아이디어의 빈곤이나 意見不一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建築教育의 문제를 文教行政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建築人 스스로의 主体性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非行動을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文教行政은 建築教育만을 다루는 機構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기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建築教育의 문제를 建築教育者들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建築人 전체의 책임을 그 일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이 또한 지난 十餘年의 非行動을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建築教育者들의 行動能力은 文教行政 및 大學行政의 갖가지 레드테이프에 묶여 지금까지의 것 이상의 行動을 기대할 별다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建築教育은 建築人 모두를 위한 것이다.

設計, 施工, 行政, 教育 어느 分野에 종사하든 모든 建築人들은 後世代를 위한 建築教育에 共同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本 論文은 이러한 관점에서 現在 우리의 建築教育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英國과 美國의 建築教育과 비교·검토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문제점 추출에 있어서 이미 國內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가급적 반복을 피하였으나 그 論點이 불충분하였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 II. 建築教育의 범위

建築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이다.

建築人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建築空間創造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建築은 建築家에 의하여 設計되고, 施工者에 의하여 施工되며, 建築의 社會性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法에 의한 절차를 관장하기 위하여 建築行政을 필요로 한다. 建築教育은 예비 建築人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한다.

設計, 施工, 行政, 教育은 建築界를 이루는 네 기둥인바, 人類를 위한 建築空間創造라는 同一 目的을 共有하는 建築界의 組織要素인 것이다. 이들 組織要素들은 分業의 屬性을 띄울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곧 人的構成要素는 아니다.

建築人은 이들 組織要素間에 水平的으로 교류될 수 있으며 또 이들 要素間의 水平的 정보교류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 의미에서 이들을 水平的 組織要素라 부르코자 한다. 建築界의 水平的 組織要素는 建築教育의 對象設定에 필요한 要素다.

建築空間이란 量的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이

들로 한정되는 빈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質的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바람, 열 등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建築空間이라는 포괄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사람에게 有用한 建築空間을 創造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狹義의 建築分野 외에도 여러 專門分野들의 協力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專門分野들이란 構造力學, 設備, 造景, 土木, 都市計劃 等이며 경우에 따라 그 協力の 폭이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앞서 논한 建築界의 '水平的組織要素들에 共通的으로 필요한 專門分野의 協力을 의미하며 편의상 建築의 垂直的構成要素라 부르기도 한다. 建築의 垂直的構成要素는 建築教育의 內容設定에 필요한 要素다.

建築空間은 그 機能의 다양성에 따라 住居建築, 事務用建築, 公共建築, 宗教建築, 教育研究用建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규모의 大小에 따라 작게는 一點에서 시작하여 一室, 多室, 建物, 建物群, 團地, 都市, 地域, 國土, 더 나아가서는 地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宇宙空間까지도 개념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및 규모외 係는 建築教育의 프로그램 設定에 필요한 係이다.

建築空間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이며 建築空間認識의 主体는 사람이다.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위한 建築空間을 創造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建築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建築教育에서 人文社會科學分野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以上 建築과 建築人을 定義하고, 建築教育對象設定에 필요한 建築界의 水平的組織要素를, 建築教育內容設定에 필요한 建築의 垂直的構成要素를, 建築教育 프로그램 設定에 필요한 機能의 다양성 및 규모의 係를, 그리고 建築空間認識의 主体로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러한 分析의 接近은 建築教育의 범위를 設定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分析에도 불구하고 建築教育을 시행함에 있어 建築의 大前提인 目的의 性은 항상 온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建築의 目的이 人類를 위한 建築空間創造에 있다는 것이다. 建築教育이 자칫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空理空論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建築空間創造라는 建築의 目的의 性을 잃어 버린 데 기인하는 것이다.

### Ⅲ. 問題點의 추출

#### 1. 建築教育 後見機能의 不在

建築教育의 문제에 先行하는 國內 建築界의 문제점이 있으니 이는 建築界로서의 一性性 결여에서 오는 水平的組織要素 간의 互干심이다. 그 構成員 및 機能의 합리적 分化 자체가 애매한 建築三團體가 鼎立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으나 실은 그 중 어느 團體도 建築界의 총체적 대표기능을 할만한 包括性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더 큰 문제다.

아마도 建築團體의 包括性으로는 英國의 RIBA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RIBA가 1년에 한 차례 갖는 총회에는 建築各界의 수 백명 회원들이 참석하여 3~4일 동안 머무르면서 研究發表討論, 建築材料展示, 建築界 共同關心事 討議 등 理論과 實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교환은 물론, 자유시간을 이용한 각종 문화, 오락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建築人의 團합을 과시한다.

RIBA는 또한 英國 建築教育의 後見團體로서의 傳統的인 역할을 한다.

즉 RIBA는 英國에 建築教育 定規大學過程이 생겨나기 전 徒弟教育 당시에 建築家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의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建築家의 質的 수준을 직접 관리하였다. 3단계의 시험은 제 1부 건축 보조원 시험 (Architectural Assistant), 제 2부 보조건축사시험 (Assistant Architect), 제 3부 건축사시험 (Architect)이며 제 3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은 7년이었다.

1894년 리버풀大學의 建築學科 창설을 시작으로 英國 建築教育의 中心은 차츰 大學으로 옮겨져 1972년 현재 英國에는 RIBA가 인정하는 39개의 建築學科가 있다. RIBA가 인정하는 建築學科란 종전 RIBA가 실시하던 3단계 시험을 自体에서 실시할 권한을 위임받은 建築學科를 의미한다.

따라서 現在의 英國 建築教育은 徒弟教育 당시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自律性을 위임받은 셈이나 그렇다고 하여 RIBA의 建築教育에 대한 後見機能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RIBA와 NCAA (The National Council for Academic Awards)는 5년에 한번씩 각 建築學科에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그 建築教育의 수준을 심사한다. 수준이 미달되면 RIBA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위의 심사위원은 RIBA의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實務者, 教育者들을 포함하여 7명 가량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각 建築學科에서 매년 실시하는 최종심사에는 内部심사와 外部심사가 있어 이들 결과를 RIBA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外部심사는 他大學 教授 및 實務分野 인사들이 맡는다. 이렇게 해서 각 建築學科의 教育內容, 방침, 그리고 그 質的 수준은 RIBA뿐 아니라 모든 建築人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後見機能이 英國 建築教育의 質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은 물론이다.

現在 國內 建築教育은 이러한 後見機能을 갖고 있지 않다. 形式상으로 본다면 文教行政과 大學行政이 그러한 機能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十餘年間 그 實質的 効力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그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 學生定員과 이에 연관된 문제를 살펴 봄으로써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980年度 UNESCO 통계에 의하면 1978년 現在 韓國의 專門大 以上の 建築 및 都市計劃係 專工 學生數는 2만 4천 33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英國의 1.67배, 스위스의 11.5배, 스웨덴의 15.7배, 노르웨이의 42.8배, 그리이스의 16.3배, 덴마크의 9.3배, 인도네시아의 8배에 해당한다. 美國의 경우 직접 비교할 통계자료가 없으나 다른 통계를 인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2.75배에 달한다.

以上 통계들을 검토할 때 韓國 建築係 學生數는 1976년

좁은 이미 英國의 學生數를 능가했으며, 1978年 以前에 美國의 學生數의 1/3線을 넘어 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建築專攻 大學生 定員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교통계연보에 의하면 國內 大學 建築係 學科의 入學 定員은 1976年 30個 學科 1천 2백 10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55個 學科 3천 1백 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年度 入學定員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1983年度에는 國內 大學 建築係 學生定員 1만 2천 4백 80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5年 경부터 建築專攻 大學卒業者는 3천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1976年度 卒業者 7백 9명의 4배를 넘는 수자이며 1980年度 卒業者 1천 76명의 3배에 가까운 수자이다. 참고로 1980年度 卒業者 中 취업자는 6백 94명이었으니, 이 정도의 취업율을 유지하려 해도 1985年 경에는 매년 2천여명의 일자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學生定員의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에 따른 教授의 부족, 圖書 및 資料의 부족, 施設의 미비 등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삐 풀린 말처럼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大學설치 기준명이 定하고 있는 교원 배치기준, 시설기준 등 法令이 그 實質的 규제력을 상실하였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다.

國內 建築教育의 後見機能을 文教行政이나 大學行政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建築界의 後見機能이다. 그런 의미에서 建築界의 3團體 鼎立이라는 현상을 탈피하는 것도 급선무라 하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3團體의 협의 아래 建築教育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共同 委員會를 設置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 2. 建築教育의 自律性 결여

國內 建築教育의 教科過程은 소속 大學의 學則으로 정해지는 사항인 바, 이 역시 建築教育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힘든 제도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國內 建築學科들은 대부분 工科大学에 속해 있으며 그 교과과정 수립은 물론 크고 작은 教育政策들은 대부분 非建築人들로 構成되는 議事決定 과정에서 정해진다. 建築教育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는 非建築人들은 필경 建築教育을 一般 工學教育과 同類視하며, 실령 이해한다 하더라도 建築教育이 工科大学에 속해 있음을 탓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의 建築教育은 주로 非建築人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의 建築界는 예비 建築人들의 기초교육을 전혀 他人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물론 이 점에 있어 建築教育의 一線을 담당하는 建築教育界가 그 1次的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近年에 大學 卒業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技士試驗에서 建築專攻 卒業班 學生들이 선택할 수 있는 技士종목은 施工, 構造, 設備 등 3종목이었다. 이 중 施工技士 시험과목에 建築設計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당연히 建築計劃으로 불리어야 할 과목으로서, 말하자면 建築專攻 卒業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

가시험에서 정작 建築教育의 주축인 設計가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제 建築專攻 學生들은 4學年이 되는 학기부터 定規 教科過程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저학년 學生들도 기사검정과목 이외에는 냉담하게 되어 버렸다. 한 마디로 建築教育界는 그 자체가 주도하여야 할 方向舵를 전혀 남의 손에 넘겨 준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1919年 Gropius가 Sachs n-Weimar-Eisenach 대공작을 만나 Bauhaus 교장직 수락의 조건으로 맨 처음 내세운 것은 學校 再改編을 위한 全權이었다. 그는 이 全權을 가지고 近代建築의 요람으로서의 Bauhaus를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938年 Mies van der Rohe가 IIT의 建築學科長職 수락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새로운 建築教育 프로그램의 채택이었다.

당시 Heald學長과 Cunningham理事長은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Rohe가 IIT 建築學科長으로 부임하여 他意에 의하지 아니한 建築教育을 실시 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IIT뿐만 아니라 Harvard, Cornell, Columbia, California, Princeton, MIT 등 美國의 建築大學들은 入學, 제적, 教科過程, 학위수여, 예산관계, 교직원의 채용 등 建築教育의 學事, 教務, 財務行政에서 온전한 自律性을 행사하는 建築教育機關들이다.

우리 나라 建築教育의 自律性 결여의 一次的인 책임이 建築教育界에 있다는 말은 工科大学行政의 레드테이프에 얽매어 지극히 소극적인 建築教育을 감수하여 온 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建築教育을 建築人의 책임 아래 수습하여 나아갈 수 있는 自律性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단계 行動은 아마도 建築學科를 工科大学에서 분리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3. 建築設計教育 輕視

建築教育에서 設計教育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번 있어 왔고, 우리 나라의 設計教育이 현재의 비중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國內 建築人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設計教育이 당연히 지녀야 할 包括性(Comprehensiveness)에 대한 理解度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으며, 또 設計教育이 建築教育의 中樞的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있어서도 아직은 충분히 남득이 안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設計教育의 중시가 建築教育 他分野-構造, 設備, 建築史 등-에 대한 상대적인 輕視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設計教育의 包括性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며, 또 設計教育 강조가 建築教育을 디자이너로서의 建築家 教育 일변도로 끌고 갈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設計教育의 目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建築設計教育은 建築空間創造라는 建築人 모두의 사명을 실천에 옮기는 包括的 教育의 場이다. 따라서 設計教育은 單一科目이 아니라 연관 專門分野(建築의 垂直的 構成要素) 일체를 포함하는 複合科目이다.

英國 設計教育의 특성은 그 包括性에 있다. 그들은 연관 專門分野 거의 모두를 設計教育에 동원한다. 예를 들

면 設計案의 構造模型으로 構造力学實驗을 하기도 하며, 風洞에 넣어 바람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기도 한다. 또 사용 材料로 試片을 만들어 그 熱伝達特性을 實驗하기도 하며, 照明實驗, 音響實驗을 거치기도 한다. 따라서 設計教育은 여러 分野의 여러 教授들이 담당함은 물론, 그 場所도 設計室뿐만 아니라 各 專門分野의 實驗室, 圖書室, 模型製作室, 写真室 등이 다양하게 이용된다.

適當 20여 時間에 달하는 設計教育을 이렇듯 多發的으로 進行시키기 위하여는 매우 組織的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英國의 建築学科들은 오랜 經驗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英國의 建築教育 教科過程은 設計教育을 주축으로 짜여지며 理論講議科目들은 設計教育을 보조하는 양상으로 進行된다.

美國의 경우 設計教育에 보통 適當 12時間을 할당하고 있다. 이 점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包括的의 심도가 英國의 경우에 못 미친다. 즉 여러 專門分野의 教授들이 設計教育에 동원되지도 않고 또 各 專門分野의 實驗을 거치지도 않으며 그 場所도 대체로 設計室과 圖書室에 국한된다. 美國의 設計教育은 「問題中心」(Problem Method)으로 운영되며 이는 실제 혹은 가상의 問題를 設定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艾프로우치(Approach)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1947年 CIAM 총회에서 행한 Gropius의 발언에 그 의미가 잘 표현되고 있다.

“建築教育에서 技術을 教育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艾프로우치 方法을 教育하는 것이다. 包括的인 지식과 經驗의 合一은 建築教育 初期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學生들은 事物의 全体性을 마음 속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教育方法은 設計, 構造, 경제성, 社會性을 同時에 包括하는 創造的 活動으로 學生들을 유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英國과 美國의 設計教育을 비교한다면 英國은 行動的 設計教育을, 美國은 思考的 設計教育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一般化하여 볼 수 있다.

실제로 英國의 경우 設計 프로그램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 學生들은 그 프로그램을 따라 주어진 과제를 차근 차근 수행해 나가는 편이다.

한편, 美國의 경우 設計 프로그램이 비교적 간단하며 學生들은 자유롭게 개성적인 艾프로우치를 시도한다. 따라서 個人差가 많음은 물론이며 연관 專門分野 研究가 英國의 경우만큼 包括的인 아님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그 教育原則을 어디에 두든간에 設計教育이란 組織的이고 計劃的인 實驗爲主의 教育인 점은 英國이나 美國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다면 設計教育은 設計技術을 연습하기 위한 教育이라기 보다 建築的인 思考力을 기르기 위한 教育이라는 점이다. 設計教育 과정에서 設計技術을 습득한다면 이는 有用한 副産物로서 또한 환영할만한 것임은 물론이다.

設計教育時間이 適當 6時間에 不過한 우리 나라의 경우 設計 프로그램은 不在하며 設計課題는 建築類形(Building Type)과 규모를 定해 주는 정도이다. 절대 시간이 부족하고 一個班 50餘명의 學生들을 한명의 教授가 담당하므로 個人的 지도시간이 매우 제한된다. 設計教育 담

당시간은 實時間 1/2로 切下計算되므로 그 輕視를 조장하는 셈이다. 그나마 일부 뜻있는 建築教育者들이 뒤늦게 設計教育을 강조하려 시도해도 결국은 부딪치고 마는 벽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學生들 자신의 設計教育 輕視 풍조이며 그 직접적 동기가 技士檢定科目에 設計가 不在하는데 있음은 이미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다.

國內 建築教育의 이러한 設計教育 輕視 풍조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卒業生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 建築界의 실제 문제에 부딪칠 때 과연 學校에서 해 온 것 以上の 思考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대답은 否定的이다. 그들은 아마도 建築空間創造라는 建築人의 사명 자체를 과소 평가할 것이며 이 세상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의 思考過程에서 建築의 科學性, 藝術性, 社會性, 人間性 등 어휘는 거추장스런 것이 될 것이며 한 마디로 建築이 향유해 오던 일체의 文化的 價치는 퇴색하여 갈 것이다. 결국 創造의 要素야 할 建築人의 이미지는 한낱 皮동적인 注文生産者의 그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언제 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 建築人들 사이에는 이러한 功利적 立場에 차츰 익숙하여 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 4. 建築空間 輕視

Bruno Zevi는 일찌기 「Architecture as Space」에서 빈곳(Void)의 有用性을 강조한 바 있다.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建築의 有用性은 바로 建築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빈곳, 無, 즉 空間에 있다. 물론 空間은 無가 아닌 바닥, 벽체, 천정, 지붕 등 有形物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建築의 有·無 二元論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우선 有의 表面을 보도록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言語는 우선 有의 이름을 입에 올리도록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有의 안티테제인 無를 등한히 할 思考的 弱點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事物의 眞 接접기에 집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즘의 建築教育의 教科過程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建築構造, 建築施工, 建築材料, 構造力学, 建築製圖 등은 완전히 有를 다루는 과목들이다. 建築史는 空間을 다룰 수도 있는 과목이나 흔히 樣式史에 치우치므로 역시 有를 다루는 과목이다. 建築計劃原論은 建築環境의 物理的 現象들을 다루므로 一見 有形物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빛, 열, 소리, 습기 등은 역시 有로 보아야 한다. 建築計劃各論은 空間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이나 흔히 物理的 機能論, 所要面積, 등에 치중하므로 역시 有를 다루는 과목이다. 이제 無, 즉 空間을 다룰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과목으로 建築設計가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建築設計教育은 어떠한가. 기본평면을 짜면서 벽체가 아닌 빈곳을 위주로 하는가, 창을 내면서 샷슈 아닌 빈곳을 생각하는가, 천정 높이를 정하면서 그

밑의 빈곳을 생각하는가, 지붕을 덮으면서 그 위의 빈곳을 생각하는가, 건물을 배치하면서 그 빈곳에 눈을 두는가, 나무를 심으며 그 그늘을 생각하는가, 침탑을 울리며 하늘을 생각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여 建築教育過程의 대부분은 오직 有를 위하여 쓰여질 뿐이다.

建築의 無, 즉 建築空間은 그것이 건축의 第一 目的임에도 불구하고 教育過程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 5. 人間 輕視

建築空間은 人間活動을 담는 그릇이며 그 認識의 주체는 사람이고로 建築空間創造는 사람에 대한 理解를 전제로 한다. 위 명제에서 '人間活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空間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人間活動을 전혀 物理的(Physical)인 것으로 본다면 결국 建築空間이란 物理的 人間活動을 담는것이 되므로 이는 바로 機能主義가 추구하던 바이며 機能主義는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제목이므로 구태어 더 論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人間活動의 精神的(Mental) 측면이며 이는 人間이 육체와 精靈의 二元的 存在임을 인정한다면 곳이 反論할 성질이 아니다.

1981년 여름 美国建築學校協會(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 of Architecture)의 총회에서 Lawrence B. Anderson 씨가 행한 기조연설에서 建築界가 처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行動心理學者(Behavioral Scientist)의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建築人들의 無識을 지적하는 귀절이 있었다. 실제로 現代心理學界에는 環境心理學(Environmental Psychology) 分野가 이미 확립되었고 매년 수많은 論文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W. R. Finigam의 「住居環境에서 프라이버시의 역할에 대한 실험적 관찰」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住居環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천정 높이가 사람에게 미치는 心理的 영향을 연구하기도 한다.

近年에 建築心理學에 관한 국제적 모임의 보고서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建築人들 사이에서 이미 建築心理學研究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 建築教育界가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는 기색은 없다.

Bauhaus 建築教育은 Gropius의 명쾌한 合理主義的 論理에도 불구하고 前近代의인 모든 것에 대한 反動的인 思考의 결과로서 하나의 맹점을 안고 태어났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人間不在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精神的 人間不在이다. Bauhaus의 교과과정에는 自然과 材料의 研究는 있었으며 人間 心理研究는 없었다.

Gropius, Mies, Breuer等 Bauhaus를 中心으로 한 現代建築의 기수들의 작품은 'Pure Form'을 추구하였으니 그것은 추상예술에 가까운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감동할 만한 작품을 남겼으나 그들보다 훨씬 덜 천재적인 평범한 많은 建築家들은 오늘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건물들로 現代都市를 채워왔고 또 지

금도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現代建築教育의 論理的 弱點인 人間不在, 더 구체적으로는 精神的 人間不在가 초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Bruno Zevi는 Wright, Aalto등에 의해 대표되던 소위 '有機的 建築'이 機能 해석을 物理的인 기능뿐만 아니라 心理的인 기능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후의 機能主義 後期建築과 相通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有機的 建築'이 비평가들의 말대로 非論理的인 낭만적 운동으로 해석될 성질이 아니라 近代心理學에 바탕을 둔 科學的 論理的인 산물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1940년대까지 有機的 建築이 천대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建築的 思考가 物理的 機能 이상의 기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Wright는 그의 천재성에 의하여 心理的 機能을 設計에 적용은 하였으며 이를 설명할 論理를 가진바 없었고 또한 Gropius처럼 教育機關을 통하여 펼쳐나갈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막연히 '有機的 建築'을 언급하였을 뿐이었다.

그후 20여년이 지난 1957년에 Zevi가 「Architecture as Space」에서 心理的 機能을 언급하였고 60년대에 들어와 建築心理學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建築教育은 이에 무관심한 상태이다. 本項의 人間경시의 문제점이라 함은 바로 이 內面的 人間의 경시를 두고하는 말이다.

## 6. 理論과 實際의 유리

1930년대 후반 Gropius, Mies 등 유럽의 建築家들이 美国 建築教育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을때까지 美国의 建築教育界는 實務와 관계없는 教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Giedion은 美国 建築教育의 아카데미즘을 타파한 것을 이들 유럽 建築家들의 큰 공로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신념에 의하면 젊은 建築學徒들의 創造的 能力은 創造的인 教授들과 접촉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Giedion의 생각은 곳이 같은 범주는 아니더라도 美術教育, 音樂教育등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거의 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美術의 미디어가 作品이요 音樂의 미디어가 소리이듯이 建築創造의 有一한 미디어가 建築空間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創造能力의 직접적 원동력이 理論的 배경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다만 理論的 배경은 思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建築學科 教授들의 實務적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1970년대 까지는 그나마 그동안 實務에 익숙했던 教授들에 의하여 建築教育의 理論과 實際의 균형이 유지되어 왔다고 보자. 그러나 1980년대 부터는 그 균형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각 大學의 建築學科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거치고 實務界와는 거리가 먼 理論家들로 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물론 建築學科들은 實務界의 인사들을 教授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教授의 자격인정에 관한 우리나라

의 文教法令은 實務경력을 경시하고 있으며 個人設計事務所 경력이라면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教育界와 實務界의 尤利현상은 필연적으로 建築教育에 있어서 理論이나 實際의 尤利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오래 계속할수록 그 정도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 IV. 結 言

以上 建築教育이 처하고 있는 현황에 입각하여 6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등을 설명하였다. 이 중 1, 2, 3, 6항들은 우리 나라의 建築教育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이고 4, 5항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建築教育에 해당한다기보다는 英·美등을 포함한 建築教育의 경향에 대한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필자의 과거 10년간의 建築教育界에서의 경험, 1974년도 3개월간에 걸쳐 英國建築教育界를 돌아보고 얻은 것, 1981년도 文敎部 선발 研究教授로 美國의 Columbia 建築大學에 머물며 살펴본 바, 그리고 同大學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추출해낸 것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建築教育 전

반을 包括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建築教育 개선의 첫 걸음이 문제점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建築界는 모든 組織要素를 포함한 모임에서 共同關心事로서의 建築教育을 論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 모색은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보며 本論文에서는 構體的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과정이란 반드시 論理的 과정이 아니며, 非論理的 측면을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공연한 個人的 의견의 난무는 오히려 편견을 낳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論文의 結論으로서의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對話의 시작이다. 이 對話란 앞서 언급한 建築界 各 組織要素를 포함한 對話를 말하며 그 形式은 大韓建築學會, 大韓建築士協會, 韓國建築家協會의 建築三團體가 인정하는 小委員會의 성격으로 합의 좋을 것이다. 그 다음의 모든 것은 그 委員會에서 協議됨이 우선의 순서일 것으로 본다.

建築界의 전반적인 지원없이 建築教育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음은 이미 本文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 지원이 가능해 질때까지 우리 教育界는 지금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다만 가능한 한도의 研究, 教育에 전념할 수 있을 뿐이다.

1981년도 문교부 해외파견연구교수 보고논문.

#### <참고 문헌>

- 東亞年鑑 1979, 東亞日報社 1979
- 文敎部 통계연보 1980, 文敎部 1980
- 李熙奉, 建築設計教育의 理論과 方法에 관한 研究,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제10권 2호 p. 57~68, 1979
- Anderson, L. B., Excerpts from the Keynote Address, ACSA Annual Meeting, Asilomar, 1981
- Ansell, W. H., Architec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April 1936, p. 565
- Bosworth, F. H., Jr. et al, A Study of Architectural Schools, Charles Scribner's Sons, N. Y. 1932
-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ninth printing,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80
- Grant, W. V. et al,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8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80
- Gropius, W., The New Architecture and the Bauhaus, the seventh printing, the M. I. T. Press, Cambridge, Mass. 1979
- Jenkins, M., 영국에서의 건축교육과 실무와의 관계, 建築 17卷 52號 73年 6月, 大韓建築學會 1973
- Swenson, A. et al, Architectural Education at IIT 1938 - 1978, IIT 1980
- UNESCO, Statistical Year Book 1980, UNESCO.
- Zevi, B., Architecture as Space, Horizon Press, N. Y. 1957